

차자석 박사의 불교공부



세가지 삼매의 조건-無願

무원이란 아프라니히따(a-pra-ni-hita)라는 산스크리트어를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다. 여기서 아프라니히따라는 말은 축자적으로 해석하자면 '앞에 아무것도 놓아두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전이되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않는 사람, 목적이 없는 사람, 아무 것에도 굴복하지 않는 사람, 무상에 대한 명상에 의해서 부정해야 할 지각의 대상을 갈망하거나 편애하지 않는 사람을 지칭한다.

무원이 갈망이나 편애하지 않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려면 열반은 갈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부파 불교시대에 이미 나타나고 있다. 열반이란 용어 자체가 갈망이나 욕망의 소멸 내지 정지를 의미하는 조건들이다. 성인들이 '열반으로 마음을 기울인다'는 표현은 논리적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열반 자체로 향한다는 마음조차 없애 버린 경지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열반이라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열반이 수행자 내지 불교도들의 갈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열반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다. 일반적으로는 바라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버린 경지이며, 무엇인가를 얻겠다는 생각조차도 버린 경지를 말한다. 이것을 전문적인 불교용어로는 공공(空空)이라 한다. 공하다는 생각까지도 비워버린 상태이다. 인위적인 어떠한 몸짓이나 감각에도 사로잡히지 않으며, 열반을 대상화하지 않는 경지이기때 무원(無願)이라 말한다.

수행자의 마음에 열반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수행의 과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갈망의 표현이 될 수는 없다. 이러한 상태를 표현의 논리성을 구비해 말할 수는 없지만 적절한 구절이 있다. "열반에 관해서는 불잡을 것이 없다. 하루 종일 달이 있는 다리미에는 모기가 앉지 못하는 것처럼 열반의 상태에선 모든 사물이 매우 찬란하기 때문에 갈망이나 자만심 등의 잘못된 견해가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지금까지 열반으로 향하기 위한 세 가지 삼매의 조건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공에 대한 명상은 존재론과 관계되며, 무상은 인식론의 영역에 속하고, 무원은 의지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아비다르마를 연구하던 많은 불교 사상가들은 교학의 체계를 연구하면서 매우 친절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구축하게 된다. 즉

'공하다'는 생각까지 비워버린 상태 공-존재, 무상-인식, 무원-의지에 속해

지니고 있을 때뿐이다. 예컨대 '감각적인 갈망'에 집착해 있는 사람들은 열반에 수반된 희열과 기쁨 때문에 열반을 얻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더 잘되기를 바라는 갈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열반 속에서 개인적인 존재의 불명성을 기대하려고 할 것이며, 열반을 통해 자신의 영속성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반면에 '소멸에 대한 갈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없애고 싶다는 소망을 열반을 통해 충족하려고 할 것이다. 이들은 열반을 단순히 없음(無)이 따르는 죽음의 일종이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갈망이 소멸하기를 바라는 수련'과 '스스로를 소멸시키려는 갈망' 사이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기실 열반은 감각적인 갈망을 만족시켜 줄 수 없다. 그것은 감각을 만족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감각의 대상들을 통해 느끼게 되는 감각적 기쁨을 완전히 벗어난 이유(離欲)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열반에 도달하고자 삼매에 들어 가더라도 무원의 상태에 들어가기야 하는 것이다. 일체의 감각적 대상 즉 존재 일반을 관할하더라도 그것들에 사로 잡히지 않으며, 그래서 더 이상 버릴 것이 없는 상태의 선정의 마음을 필요로 한

공은 '궁극적인 실체가 있다는 잘못된 견해'에 대한 교정 수단이며, 아트만과 나의 소유라는 관념과 반대되는 것이다. 무상은 눈이나 귀 등의 감각의 대상을 일체 부정하며, 무원은 세계의 어떠한 존재에 대해서도 의지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청정도론>에 의하면 무원이란 이름을 붙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무아에 대한 통찰과 '자아, 존재, 사람'의 관념에 대한 부정은 공으로 이끌어 가며, 불만족(苦)에 대한 통찰과 일체의 소망이나 희망 혹은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고자 하는 기대를 포기한 결과로 무원으로 표현한다.

공, 무상, 무원은 다양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무아나 무상(無常)의 논리적 기반 위에서 서 있다. 궁극적 실체가 없고, 시간적으로 생겨나 머무르다 변화하고 소멸하는(生住異滅)의 무상한 속에서 사로잡혀야 할 대상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증명하기 위해 세밀한 논리를 전개했지만 기실은 무상하기 때문에 사로잡히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간파해야 한다.

<본지 삼입논설위원·불교학 박사>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모든 공덕의 어머니



(부산 관음사 조실)

부처님께서 일생동안 설하신 경전을 팔만대장경이라고 합니다. 팔만대장경을 총별(總別)로 나누면 화엄경은 총경(總經)이고 그 이외의 경은 별경(別經)에 속합니다. 화엄경은 별경의 내용을 모두 함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화엄경만 알면 다른 경전은 다 아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화엄경의 조점을 알면 바로 팔만대장경의 핵심을 알게 되는 것이고 부처님이 일생동안 설하신 내용의 조점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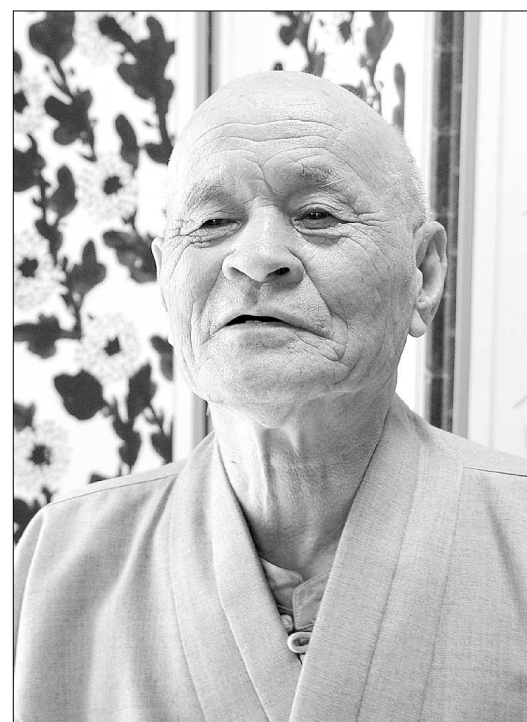
화엄경의 조점은 바로 신해행증(信解行證)이라는 네 가지입니다. 믿고, 알고, 행하고, 증득하는 것이 바로 화엄경을 이루는 네 기둥이요, 그것은 곧 불법의 기둥이 되기도 합니다. 화엄경은 이처럼 신해행증이 주가 되기 때문에 제목부터 거과권락생신분(果勳樂生信分)의 믿음(信), 수인계과생해분(修因契果生解分)의 해(解), 탁법진수성행분(托法進修修行分)의 행(行), 의인증입성덕분(依人證入成德分)의 증(證)이라는 네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화엄경에서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믿음은 흠과 같다고 했습니다. 화엄경에는 신유도원공덕모(信爲道元功德母)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도의 근원이며 모든 공덕의 어머니라는 말입니다. 또한 일체 모든 선근은 믿음으로부터 성장하며 열반 무상의 길도 믿음으로부터 개척되고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그것은 바로 흠과 같이 만물의 근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모든 만물을 기르는 근본이 되는 땅덩어리입니다.

그다음으로 화엄경은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농사를 짓는다면 농사짓는 법을 알아야 하고 밭을 한다면 밭짓는 방법을 알아야 하듯이 일체 모든 법칙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믿고 바르게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비옥한 땅이 있고 아무리 훌륭한 농업기술을 알았다 해도 실행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불법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행을 안 하면 헛일입니다. 그 만큼 요즈음 불자들의 관심을 살펴보면 실행의 측면에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믿는다는 차원에서 이질 적 더 아니고 알아야겠다고 불교대학을 열성으로 다니기는 하지만 믿고 아는 만큼 실행하는 것에서는 부푼어진다 이 말입니다. 배우려고 열성을 다하는 것만큼 실행을 해야 합니다. 신(信), 해(解), 행(行) 세 가지 중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머리카락 하나만큼이라도 더 비중을 둔다면 그게 바로 행(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행하면 되겠습니까? 화엄경에는 그 실행방법으로 열 가지 바라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육바라밀에 방편(方便, 願), 역력, 지(智)를 더해 열 가지 바라밀을 실천하고 수행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믿고 알았으면 이 열 가지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팔만대장경을 총괄으로 의우더라도 행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화엄경에 설명 놓은 열 가지 바라밀을 실행하는 것이 불교의 핵심을 꿰뚫는 방법입니다.

화엄경은 십바라밀의 실천과 관련 단계적으로 50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50층 불탑이라는 고층 건물을 짓는데 50계단을 하나 하나 세



<65년간 설법을 쉬지않은 성공스님은 77세의 노구에도 초창 설법을 마다않는, '포교제일' 부부나 존자를 닮았다.

이기적 깨우침 치중뎌 독각 중생제도 원력 강하면 보살 자리아타 정신 조화뎌 부처

믿고 알고 행하여 증득하면 곧 성불

밀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십바라밀을 실천함에 있어 열 가지 바라밀을 믿는 심신(心信)의 단계가 있고, 믿는다는 바탕 위에 그 열 가지 바라밀에 머무는 심주(心住)의 단계가 있으며, 머무는 것으로 분개도에 오르면 본격적으로 행하는 실행(心行)이 있으며, 그 다음으로 심회향(心廻向)이 있습니다. 회향이 라고 하면 어떤 일을 마칠 때 쓰는 말이라고 알고 있는 불자들이 많지만 회향은 무엇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더 크게 보다 진취적으로 돌려 나가겠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원을 세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심회향 다음에는 심지(心地)가 있습니다. 심신, 심주, 실행, 심회향, 심지를 합한 50가지에 등가, 묘가, 구경각을 보태면 53가지가 됩니다. 53선지식은 사람을 상진으로 나타내면서 동시에 53가지의 계단을 뛰어넘어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어 놓은 것이기도 합니다.

보시, 지계, 정진 등을 실천하겠다는 원을 세우는 것을 원력이라고 합니다. 아미타불의 48원, 석가모니불의 10대 발원 등 스스로 원을 세우고 그것으로 실천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실천의 힘이 바로 역(力)입니다. 다른 이가 강물을 건너지 못해 허우적거릴 때 그 사람을 업고 건널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2003년 가을 - 겨울, 중국 / 제주도 편

고품질 성지순례! 실속 있는 가격!

삼보에 귀의하옵고 판매가와 일체의 추가경비가 없습니다!
(비자요금 No! 팁 No! 옵션 No)
기존의 여행과는 차별화 된 서비스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 ◆ 11/10 - 제주/마라도 3일 21만원
- ◆ 11/13 - 보타산/낙가산/구화산/황산 7일 99만원

중국 제1 불교양국관세음보살도량 75만원

- 상해 / 항주 / 보타산 / 낙가산 5일

신라리교각 스님의 지장왕도량 79만원

- 남경 / 구화산 / 황산 / 항주 / 소주 5일

구름의 불산,보현보살 도량 - 79만원

- 아미산 / 낙산대불 / 대죽석각 5일

문수보살도량 - 69만원

- 북경 / 만리장성 / 오대산 / 운강석굴

제주 우도 / 마라도 / 제주 3일 - 27만원

* 자유여행을 원하시는 분을 위한 환원항공권 및 호텔수배 도 해드립니다.

(주) 행복만선
대표전화 **02) 720-8490**

관절염

자생환(自生丸)

관절염은 참 견디기 힘든 병입니다. 뼈마디의 통증은 통증대로, 약을 먹으면 위장장애 때문에 이증으로 고생을 합니다. 자생환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세요. 상태가 심한 분은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1개월분 ₩180,000
2개월분 ₩320,000

발명자 : 인속의학회 권재우 홍경남 신창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불교신자들의 만남, 북녘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인생이네요 이영숙 원장입니다. 이 가을에 시댁을 옮기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제목 "바람이 멈추어 선 자리" (필명: 이계임)

자서 : 그때 그리울때 가을은 아름다운 사랑으로 물들고 인생을 갈망하며 그리움으로 울고 있을때 고달픔을 업고 가는 어머니 품속으로 포근한 바다가 있습니다. 가슴에 남아있는 그리움 이별의 끝에서 고통으로 서 있던 시간들은 이제 자유로와 질때다 ... 행복

부족한 글 의로움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시(詩)가 되었으면 합니다.

▶ 편에서 :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시문(예서출판), 태형서적, 두레문고 외 대형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 대우, 초 - 재은 신원 확신이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시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 결혼연구원

원 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사무실 : 032)345-5411
휴대폰 : 011)288-2944

당뇨

국내최초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생약캡슐

당치 발란스 (糖治) BALANCE

- 당뇨, 고혈압,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면역 약과대약 글루코스를 의학계 경종을 울려 개발된 천연의 식생활 습관에 의한 당뇨병 예방제입니다.

▶ 당치 발란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7일~15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1개월분 180,000원

- 당치발란스의 임상실험 -
당부하검사와 같은 개념으로 200그램의 탄수화물 섭취 이후 2시간까지의 최고 혈당치가 164mg/dl 이상인 건강한 21명 중 90%인 19명에서 혈당 강하 효과가 관찰되었으며, 평균 혈당 감소치는 29mg/dl이었다. 최고 혈당치 120 mg/dl 이하인 실험대상에서는 혈당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주)아미노젠
주문 및 무료상담전화 **080-558-66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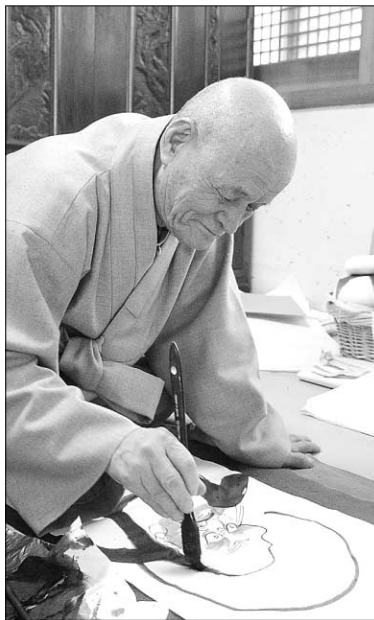
아니다! 아닌것도 아니다 비위라! 비운것도 비위라 없애라! 없는것도 없애라

다. 내 힘이 부족하면 함께 강물에 빠져버리게 되므로 스스로 힘을 길러 두루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智)는 지혜모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 놓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실현하는 원동력은 지혜입니다.

이렇게 화엄경에 설해놓은 실행방법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증(證)의 경지가 옵니다. 증은 곡식의 열매를 따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서 공부를 해서 깨쳐야겠다 하고 공부를 하고 있지만 설사 공부를 해서 견성성불(見性成佛)을 한다 하더라도 열 가지 바라밀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독각에 불과하고 개인주의에 불과합니다.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원력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독각불입니다. 즉, 이 기적인 깨우침에 치우치면 독각이요,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원력이 강하면 보살이요, 그 자리이타의 정신이 조화를 이루면 바로 부처인 것입니다. 불법은 자기도 깨우쳐야 되지만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한다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본래면목이 부처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래면목을 두고 어떤 스님들은 심즉시불(心卽是佛)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부처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또 어떤 스님은 비심비불(非心非佛) 즉,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이도 있습니다. 또 다른 스님은 무심무불(無心無佛) 즉, '마음도 부처도 없다' 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스님의 말이 맞고 어디에 맞춰야 할까요? 모두 다른 말처럼 보이지만 이 세 말은 모두 하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심즉시불'은 석가모니불을 나타냅니다. '비심비불'은 노사나불에 해당되고 '무심무불'은 비로자나불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물질의 세계에 해당되는 석가모니불의 차원에서 보면 처치가 부처입니다. 상대성이 있는 세계 즉, 공기의 세계인 노사나불의 차원에



◇달마도를 그리는 성공스님.



◇입적하는 날까지 법문하겠다'는 성공스님의 원력은 진한 중생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다.

서 보면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닙니다. 절대적 즉 진공의 상태인 비로자나불의 경지에서 보면 중생도 부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물질에 진공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공묘유(眞空妙有)라는 말이 바로 이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밥 먹고 똥 누는 게 깨달음입니다. 깨달은 아닌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깨달음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면 깨달기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내가 없으며 생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한 생각 일어나면 모두 망념이라 했는데 몸이 어디에 있고 마음이 어디에 있으며 '내가 깨달았다' 라는 생각이 어디에 붙을 수가 있었습니까? 내가 깨달았다는 생각을 쥐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망념입니다. 공경이 있으면 벌써 부정이 따라 옵니다. 없다 하면 벌써 꼭 들어찬 것이요, 마음 비웠다 하는 순간 비웠다의 생각이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웠다의 생각 자체가 없어야 진정한 비워진 것입니다.

아니다. 아니다. / 아닌 것도 아니다.

비위라. 비위라. / 비운 것도 비위라.
없애라. 없애라. / 없는 것도 없애라.

바로 이것이 금강경과 반야심경이 설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공경과 부정, 있음과 없음은 뛰어 넘어 불법의 가르침은 절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가더라도 두루 통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불법을 믿고 같이 배웠으면 일상생활에서 빈틈 없이 써먹을 수 있는 진정한 불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리=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기자가 본 성공 스님

"절은 전부 내 절, 신도는 전부 내 신도다." 성공스님의 일평생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다. 26세에 통도사에서 대교과를 마친 이후 팔순을 바라보는 지금까지 전국의 포교당과 사찰을 다니며 설법을 해온 스님이나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큰 절 주지는 마다하고 지방의 포교당 주지직을 맡으며 법륜하는 것에 안분치

어 금강경, 부모은중경, 천수경 등 독경테이프를 우리나라 최초로 제작해 전국에 불경을 울려 퍼지게 한 장본인기도 하다. 1926년 양산에서 태어나 1941년 해월 스님의 말 상좌인 운암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고 1943년 동산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은 성공스님은 '법사'라는 직분에 만족하며 평생을 포교에 매진해 왔다.

금강경등 독경테이프 국내 첫 제작

죽하며 살아왔다. 법사가 귀해 하루 세 차례 6시간 동안 법문을 하기도 하면서 55년이라는 세월을 법문 포교로 보낸 것이다. 경봉스님께서 "성공, 자네는 법문에 도가 터졌네"라며 등을 툭툭 두드리며 격려해 주셨을 정도로 성공스님의 법문은 다양한 비유와 경전에 대한 깊은 이해로 대중을 이끌어왔다. 성공스님은 법문 포교와 더불어

"화엄경에 법문을 암송을 비추는 등불에 비유해 놓았다"며 법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스님은 "요즘 불교 행사라고 하면서도 등불 없는 행사가 많아 안타깝다"고 하였다. 성공스님은 "죽는 그 날까지 불자들에게 등불이 되는 법문을 설하고 싶다"는 원력으로 지금도 법회가 열리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간다.



진명스님의 스님이야기

대우스님

나는 대우스님을 생각하면 나 자신을 포함한 현대 수행자들의 지범개차(持犯開遮)하며 사는 계율관을 살피게 된다. 중국 상해에서 기자로 3시간을 더 가는 남경, 남경대학교에서 석사과정 에 있는 대우스님이다. 스님께서는 일찍이 유년에 은사스님과 인연이 되어 스님으로 율곡계 살아가고 있다. 대우스님은 동학사 강원을 졸업하고 10여년의 세월을 선원에서 정진하며 화두 일념으로 심신을 조복 받고 있던 중 늘 계율에 관심을 두었다고 했다. 진관사와 운문사에서 있었던 계율 특강을 듣고 난 후 병영사에서 3번째 계율 특강을 듣게 되었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율곡을 공부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더라. 그러나 과연 누구를 의지해서 율장을 배워야 하나 고민을 할 때였다고 했다. 그때 까지만 해도 멀리서 도반들과 함께 묘엄 강주스님을 존경하고 흠모하고 있었는데, 묘엄 강주스님께서 왔으신다는 전갈을 받고 가슴 두근거리며 강주스님

기며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고 했다. 학인들에게 <치문>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새벽 3시가 넘도록 밤을 새우며 강의 준비를 하기 일췌였고, 그렇게 3년째 <치문>을 가르치는데 강주스님께서 <서장>을 가르치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대우스님은 일년만 더 <치문>을 가르치게 해 달라고 간곡히 청했고, <치문> 전반에 있는 주를 빠짐없이 출처 원본과 대조하며 가르치기를 4년, 그리고 난 후에 약속대로 <서장>을 가르치는 것을 마음에서 허락했다고 한다. 스승은 제자의 그릇됨을 인정하고 제자는 끝내 결허한 자세로 스승을 존경하는 모습, 참 보기도 못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세남이나 법남을 생각하더라도 결코 세월이 작게 흐른 것은 아닌데 늦게라도 율장을 연구하겠다는 원을 세우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국으로 유학길에 오른 대우스님의 그 용기가 우리 후학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우리 조계종 스님들은 사본율에 의거해 계율 수지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중국과 한국의 사본율을 비교분석하는 작업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준비 중에 있다고 했다. 혹자는 지금이 시대 수행자에게 있어 계율이 주는 의미가 크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오히려 삶이 복잡해지고 다양한 문화가 수행자의 삶



그림·문명성

방으로 갔다. 그런데 뜻밖에도 강주스님께서 병영사에 남아서 학인들을 지도해 달라는 부탁을 하셨다. 그러나 강원에 있을 때만 해도 감사의 꿈을 꾸었지만 이미 선원에서 마음을 굳히고 심어낸 세월을 보낸자라 경을 다시 보며 후학을 가르치는 방향으로 마음을 선회하리라 그렇게 쉽지 않았다고 했다.

늘 멀리서 존경하며 묘엄 강주스님께 율장을 배우고 싶었던 차에 용기를 내어 "스님! 실은 스님께 율장을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여기 병영사에 남아서 학인을 가르치면 내가 율장을 강의해주겠노라 약속을 하셨다. 그래서 대우스님은 "은사스님께 허락을 받고 한달 안에 오겠습니다" 라고 묘엄 강주스님과 약속을 했었다. 94년 10월 1일에 병영사로 들어가면서 묘엄 강주스님과 그렇게 스승과 제자의 인연이 맺어지고, 92년에 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받았고, 96년 스님의 그늘을 떠나 지금 남경대에서 유학하는 지금까지 어른스님의 덕화를 세

율장연구 서원...늦은막 중국유학 길

한·중 사본율연구 비교분석에 온 힘

깊숙이 스며드는 이 시대에 승가의 청정성 회복과 수행자 개인의 삶도 계율에 의해 질서를 찾아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론으로는 정신이 물질의 우위에 있다고 하지만 실생활에 있어서는 인간의 정신세계가 이미 물질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역할 수 없는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 스님들의 수행환경은 편리함이나 풍부한 물질의 유혹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육근의 자유분방함을 거두어 주고 번뇌와 망상을 쉬게 하는 계율이 있음이 수행자에게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싶다. 그래서 더욱 대우스님의 그 원이 귀하게 느껴진다.

대우스님이 강당을 떠나 도봉산 금강암에 계실 때 대우스님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진명스님! 내가 강당을 떠나 이렇게 마당 출고 마루청소 하며 지내보니 내가 한 때 강사였다는 사실을 이 마루청이 알려주었어. 이 빛자루가 알려주었어. 야상·인상·중생상·수자상은 다 허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열심히 정진해서 어서 다 벗어남시다." 아직도 이 말이 기억 속에 생생하다. 스님의 그 원이 청정승가를 이루는 튼튼한 씨앗이 될 것이다.

■ 불교방송 '차 한잔의 선율' 진행자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의 저자 無一 우학스님

완벽한 참선법

위빠사나와 간화선의 만남!
禪觀雙修(선관쌍수)

글·그림·사진 無一 우학스님
현재 영남대학교대학원원에서 최후의 소임을 맡고 있으며 저서로는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금강경 핵심강의, 길손여행, 단사대사 등 다수가 있다.

동원 출판 **중은인연**

(053)475-3707 buddhabook@hanmail.net

옥(玉) 불교용품

◆ 옥불상제작
- 삼존불, 만물전, 산신상

◆ 사찰시공전문
- 옥석탑 및 옥구조물 제작

◆ 설계조경시공 전문
- 옥·석 남골함, 황옥석제

하나무역(주) TEL : 053-962-3986
공 정 : 053-425-4449
하나석재상사 H.D : 016-808-3986
대 표 : 배 재 현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 : 특직 - 율 50% 폴리에스테일 50%
적삼, 바지 150,000~180,000
동방, 바지 180,000~210,000
두루막 150,000~180,000
2. 무 명 [먹물 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80,000
3. 무명, 면 : 면 100% [먹물 염색]
적삼, 바지 14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막 140,000
4. 숨 없는 누비 [먹물 염색]
적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200,000
두루막 170,000
5. 면 목화솜 누비 [먹물 염색]
적삼, 바지 230,000 동방, 바지 270,000
두루막 210,000
6. 골 덴 : 면 100% 적삼, 바지 180,000
7. 장삼 고급모직 220,000~250,000
대가사 150,000~170,000
법복 모직 60,000~80,000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오 ◆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 지이셀 중앙로역 3번출구앞(동아백화점 방향 입구)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이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정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지역판매점 모집)

당신에게 행운을

행운의 양말, 방석, 속옷, 손수건, 넥타이, 지갑
차량안전운행 방석, 부부화합의 이불,
가정화목의 카펫, 맑은정신의 베개
확립자에게 지혜의 선물로...
사업자에게 성취의 선물로...
수험생에게 합격의 선물로...
부모님에게 효도의 선물로...
어려운이에게 희망의 선물로...
모든이에게 행운의 선물로...

수능시험 합격기원 패션출시
전국지사 대리점

www.bujuk.shop.com

친홍정사 복지원 문의 : (053)986-1355, 017-533-1356
Fax 053)986-1356 대구 불로동 매장 053)986-1354
부산 · 경남총판 051)441-1670